

작전명: 靑春(청춘)

Two. J production

Director 장일지

Assistant Director, Producer 홍지연

1. 연출의도

우리 인간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큼 인지 알 수 없다.

그렇기에 사람들은 매 순간을 특별하고 알차게 활용하고자 각자의 방법으로 노력한다.

시간이 흘러 과거가 되고, 개인이 원하던 바를 이루지 못하면 사람들은 후회를 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기 시작한다.

사람에 대한 사랑과 마음도 다름이 없다. 한 사람을 떠나 보내고 남은 후회, 그 빈자리를 채우는 또 다른 사람.

하지만 그 새로움마저도 정해진 기한이 얼마인지 모르기에 우리는 또 진심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.

그러나 이마저도 사라지면, 사람은 상실감이 커지고 더욱 더 자책을 하게 된다.

시간이 사람에게 주는 원동력과 상실감, 대조되는 이 둘을 같이 보여줌으로써 관객들 개인의 지나가버린 시간, 그리고 앞으로 채워나갈 시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.

1-1 로그라인

아내를 보내고 홀로 지내던 재환.

딸 혜정과 같이 살기로 하지만 재환의 공허함은 여전하다.

그러다 어느 날,

재환은 자신의 멈춘 시간을 새로움으로 채워 나가기 시작한다.

할아버지 인물 레퍼런스

할아버지는 너무 나이대 있는 이미지 말고, 강렬한 분위기가 있는 분



재환(70세)

생각보다 일찍 인생의 동반자를 먼저 떠나 보냈다.

홀로 남겨진 세상, 시간은 계속 돌아가지만 재환의 시간은 할머니와 함께 했던 추억에서 멈췄다.

생활과 만사에 의욕이 사라진 재환, 가족들이 걱정하지만 큰 변화가 보일 기미가 없다.

그러다 어느 순간, 인생에 새로운 시간이 생기고 새로운 만남을 가지기 시작한다.

- 촬영 일정

5월 1-3 중 2.5-3회차 촬영 예정

- 미팅 일정

마감 후 일주일 이내에 줌(zoom) 미팅

- 지원 방법

4월 14일 낮 12시까지 gemma0627@naver.com으로

다음 파일을 첨부해 보내주시면 됩니다.

- 지원 시 메일 제목

[작전명칭춘_할아버지역_000]

ex) [작전명칭춘_할아버지역_홍지연]

- 지원 시 메일 양식

1. 프로필

2. 자유 연기 영상(대사 연기 필수)

* 페이는 추후 협의 예정*

긴급 연락처

조연출/PD 홍지연

H.P) 010 - 5118 - 6723

E-mail) soeun711@naver.com